

# 새끼손가락 모양·위치가 '블로킹 방향' 결정한다

## V리그 옛보기 블로킹의 모든 것

점프 타이밍·손 모양·손목에 따라 선풍 공을 감싸안는 손 모양 만드는 것이 중요

현대캐피탈, 블로킹 살아나니 성적도 ↑ 한국전력도 베테랑 센터 제역할 상위권

어느 배구인은 블로킹을 '손가락 한마디의 전쟁'이라고 했다.

"블로커의 손 위로 지나가는 공은 막을 수 없다. 삼성화재의 레오가 무서운 이유다. 손가락 끝에 걸려도 대부분은 코트 밖으로 튕겨 나간다. 수비하는 팀으로서 가장 대책이 없다. 대신 손바닥은 블로커의 영역이다. 블로킹 때 점프 타이밍과 손 모양, 손목을 집어넣는 순간에 따라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손가락의 전쟁이다"라고 했다.

### ●블로킹에 따라 팀 성적이 움직이던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이 초반 부진을 거듭했던 이유도, 잘 나가던 OK저축은행이 주춤했던 이유도 블로킹 때문이었다.

현대캐피탈은 팀의 자랑이었던 '높이의 팀, 블로킹의 팀'이라는 팀 색깔이 있었다. 10시즌 동안 세트 평균 3.067개의 블로킹을 했다. 어느 팀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색이 바랬다. 아가메즈가 부상으로 부진하던 때였다. 다행히 케빈으로 교체한 뒤로 블로킹이 다시 살아났다. 11월27일 케빈의 V리그 데뷔전 이후 팀이 3승1패의 호성적을 거둔 것도 블로킹 상승세와 연관이 크다. 아가메즈 이전과 비교하면 팀 블로킹 득점 비율이 56%나 늘었다. 2라운드 첫 경기인 11월12일 우리카드전(3-1승)에서 12개의 블로킹을 기록한 뒤 이후 3경기에서 4~4~5개의 팀 블로킹을 했다. 케빈이 등장한 4경기에서는 팀 블로킹이 12~12~12~17개로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반대였다. 세계최고의 마블블

로커를 보유했지만 시몬은 자신의 자리가 아닌 라이트에서 뛰다. 결국 김규민과 한상길이 중앙을 책임져야 하는데 여기서 높이의 약점이 드러났다.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내지 못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세진 감독은 신장 198cm의 루키 박원빈을 긴급 투입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 ●기대하지 않았던 부상병의 귀환에 힘이 난 팀들

대한항공의 김종민 감독은 지난 시즌 뒤 진상현이 군에 입대하자 센터진 보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오랜 동안 공백이 있었던 김형우가 살아나 희망을 가졌지만 1라운드 첫 경기만을 치른 뒤 다시 부상으로 이탈하자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LIG손해보험에서 설자리가 없던 김철홍을 데려왔는데 여기서 대박이 났다. 높이는 낮아도 베테랑의 관록으로 정확한 타이밍에서 상대 블로킹을 잡아내면서 버텨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블로킹 순위에서 꼴찌다. 129개를 성공시켰고 세트 평균은 2.150개다.

한국전력은 날개 공격수로 주리치~전광인~서재덕의 '주광덕'트리오를 보유했다 다른 팀의 부

러움을 받지만 정작 신영철 감독을 기쁘게 한 것은 안정된 센터진이다. 후인정~방신봉~하경민 등 나이 합계 111세인 베테랑 센터들이 블로킹과 속공에서 아직까지는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시즌이 뒤로 갈수록 체력부담을 걱정했지만 최근 최석기가 혜성처럼 등장해 한시를 났다. 최석기는 3일 OK저축은행전에서 무려 8개의 블로킹을 했다. 시몬을 상대로만 7개를 기록했다. 3년간 부상과 힘든 재활로 배구를 포기할 뻔했던 사연까지 겹쳐 인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됐다. 8일 현대캐피탈과의 홈세트 접전 때도 5세트 중요한 블로킹 하나로 팀에 승점 2를 안겼다.

### ●모두들 라이트를 걱정하지만 운영은 센터와 블로킹에 달린 삼성화재

삼성화재도 박철우가 떠난 이후 라이트의 공백을 메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사실 승리의 키는 이선규와 지태환이 쥐고 있다. 이들이 속공과 블로킹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는 날은 쉽게 이겼다. 어차피 레오에게 가는 공격의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가운데가 중

심을 잡고 속공으로 상대의 블로킹을 따돌려주느냐가 중요했다. 유효블로킹으로 상대의 공격을 1차로 막아주기만 한다면 장기인 2단 연결을 통해 레오의 확률 높은 득점으로 반격한다는 것이 삼성화재 배구의 기본전략이다. 그래서 블로킹과 센터가 중요하다.

15일 현재 V리그 남자부의 블로킹 순위를 보면 LIG손해보험이 1위다. 150개로 횡수도 1위, 세트평균도 2.727개로 1위다. 블로킹을 잘 하기도 하위권에 처진 것이 아이러니 하지만 스포츠는 하나의 수치가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블로킹 2위는 한국전력. 144개를 성공시켰고 세트평균 2.618개다. 이어 현대캐피탈~삼성화재 순이다. 배구 이론가인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은 "블로킹은 높이도 중요하지만 손 모양과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어떤 손 모양을 말하느냐고 묻자 "공을 감싸 안는 것처럼 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끼손가락이다. 그 모양과 위치가 따라 공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했다.

김준권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 니콜 31득점...도로공사 3연패 끝

문정원·장소연도 두자릿수 득점  
인삼공사, 조이스 부진에 8연패



연패에 빠진 팀들은 몸부림치지 마라이다. 14일까지 V리그 여자부 도로공사와 인삼공사는 각각 3연패와 7연패에 빠져 있었다. 베투 끝에 몰린 두 팀이 1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4~2015 V리그 3라운드에서 외나무 격돌을 펼쳤다.

### ●도로공사, 리시브 불안 달고 최고의 경기력

경기 직전 만난 도로공사 서남원 감독과 인삼공사 이성희 감독은 자기 팀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다고 해결되면 고민할 일도 아니었기에 두 팀 감독은 속이 뒀다. 서 감독은 "리시브는 가르쳐서 완벽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리시브 불안에서 연패 원인을 찾았고, 이 탓에 팀 분위기가까지 처져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15일 인삼공사전에선 모든 것이 다 잘 풀렸다. 범실이 가장 적은 팀답게 안정되게 경기를 운영했고, 블로킹에서 9-5로 압도했다.

주공격수인 니콜은 성공률 44.8%를 자랑

하며 31점을 올렸다. 반대편에서 왼손잡이 문정원이 19점(성공률 50%)으로 거들었고, 베투 센터 장소연도 11점을 보냈다. 도로공사는 1세트를 25-16으로 여유 있게 잡았으나 22-22 접전을 벌인 2세트를 22-25로 뺏겼다. 그러나 전열을 정비한 뒤 3세트와 4세트를 25-18, 25-17로 잡고 세트스코어 3-1로 이기며 승점 3점을 보냈다.

### ●인삼공사, 협랑미달 용병과 들쭉날쭉 경기일정에 이종고

인삼공사가 감독은 용병 조이스를 따로 불러 "국내 선수들처럼 열성을 갖고 뛰어야 하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이스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했으나 15일 경기에서도 고질인 공격성공률과 수비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28점을 올렸으나 성공률은 37.8%에 머물렀다. 게다가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지원도 부족했다. 이 감독은 1주일에 1경기밖에 없어 감각을 유지하기 어려운 스케줄에 대해서도 고민을 드러냈다. 패배가 쌓이니 선수들의 자신감은 저하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는 악순환 속에 인삼공사는 8연패에 빠졌다. 이 감독은 경기 중 작전 시간에 "답답하게 배구하네. 약속한 것들은 하자"고 선수들을 다그쳤으나 효험이 없었다.

대전! 김영준 기자 galzy@donga.com 트위터@msals21



도로공사 니콜이 1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4~2015 V리그 인삼공사전에서 상대 블로킹을 피해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도로공사는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해 3연패에서 벗어났다. 대전! 김민석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emarine07

## GS칼텍스, 장충체육관 '김백흠' 개보수 완료...내년 1월19일 개장 첫 홈경기

3년째 경기장을 전면 개보수하고 있는 서울 장충체육관 때문에 구미, 평택으로 옮겨 다니면서 홈경기를 치르던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가 2015년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다.

GS는 1월19일 도로공사와의 경기 때부터 장충체육관을 사용한다. 올드 배구팬에게는 '배구의 대제전'이 열린 장소로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장충체육관은 1월17일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개장식을 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V리그 11주년을 기념하면서 '배구의 성지'가 간직한 추억을 되새기는 올스타전을 1월25일 새롭게 단장한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그에 앞서 GS가 도로공사(1월19일) 흥국생명(1월22일)전을 치르며 새 시설을 사전 점검한다.

그동안 임시 연구지였지만 평택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연구지 정착의 모범사례를 보여줬던 GS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지난 13일엔 현대건설과의 경기를 앞두고 평택시 배구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배구용품들을 전달했다.

지난 시즌 평택시민들에게 V리그 우승의 기쁨도 안긴 GS는 1월3일 평택 마지막 경기를 위해 특별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은 평택에서 배구선수 생활을 시작한 많은 인연을 쌓아온 이숙자 KBSN 해설위원의 은퇴식이 벌어진다. 평택 은퇴하고 출신으로 2013~2014시즌 GS와 평택시민에 우승을 안긴 이 위원은 시즌을 마치고 은퇴한 뒤 배구해설위원으로 변신해 차분하고 깊이 있는 해설로 호평을 얻고 있다. 최근 바라던 대로 임신에 성공해 오는 6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김준권 전문기자

## 특허출원중

# 숯불구이의 고민...

# 연기를 확 없애 버렸습니다!!

### MG-100 무연로스타의 특징점

**경제성**

- 테이블에서 가스로 즉석착화하므로 장치인력과 넓은 공간이 필요치 않고 연료비(숯)가 절감됩니다.
- 고기구이중 연기나 그을음이 거의 나지 않아 배기, 덕트가 필요없습니다.

**편리성**

- 전기 및 후드, 덕트가 필요치 않은 자연 연소 방식으로 서랍식 물받이, 재받이 등 청소와 관리가 용이합니다.
- 특수 코팅된 석쇠, 실실이 석쇠, 망석쇠, 알미늄 코팅 석쇠 등 업소 상황에 맞는 석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맛**

- 숯불의 복사열과 원적외선 적용으로 육즙이 마르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건강식**

- 연기나 그을음이 고기에 묻지않아 건강식의 고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구이물**

- 삼겹살, 양념갈비, 장어, 오리, 막창, 소고기 등

※저희 미가는 사후관리와 A/S를 철저히 책임지겠습니다.

제조·판매 : **미가**      문의 031-981-9254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050번지      전화 010-5510-9254

● 제품 사양

- 본체 : 578×400×250
- 불판 : 420×315
- 사용연료 : 부탄, LPG, LNG

※숯불전용구이기도 있습니다.